

광주·전남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병·의원 800여곳 확대

60세 이상·의사 소견·고위험시설 우선 진행 ...PCR검사 확진자 감소와 진단부터 진료·치료까지 병·의원 가능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일선 보건소에서 운영 되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RAT)가 전면 중단 됐다.

11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광주 일선 자치구 보건소와 임시선별 검사소에 설치된 7개 신속항원검사소, 전남 22개 시군 검사소의 자가키트를 활용한 검사가 운영을 중단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기존대로 진행한다.

신속항원검사소 운영 중단은 확진자 감소와 진단부터 진료·치료까지 가능한 지역 병·의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지역민은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전문가용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광주의 경우 400여곳, 전남도 400여곳의 병·의원이 지정됐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검사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보건소 등이 무료 배포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입산부, 기타 방역 취약 계층 등에도 관계 당국 등이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유전자증폭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 기관의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의심확진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요양 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우선 진행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문가용 키트로 코로나19 양·음성이 확인할 수 있고 치료와 진료를 곧바로 연계할 수 있어 보건소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을 중단한다"며 "증상이 있는 의심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판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남진기자



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광장에 설치돼 있는 신속항원검사소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철거되고 있다.



봄날들이 나온 어린이들

화창한 봄날씨를 보인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산책 나온 어린이들이 힘차게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 20대, 성추행·불법촬영 혐의 징역 8월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누범기간 중 수차례 같은 범죄 전력"

전자발찌를 착용한 20대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성추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

겨진 A(28)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남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20·여) 씨의

허벅지 부위를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6월 23일 오전 7시 56분께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승호기자

'임금 줬는데도 불구...' 전주 상습 협박한 50대 선원 구속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선주에 연일 온갖 협박을 일삼은 50대 선원이 구속됐다.

고흥경찰서는 발화성 물질을 구입한 뒤 선주에게 분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께 고흥군 소재 선주 B(62)씨의 집을 찾아가 '밀린 임금 10만 원

을 달라. 안 주면 분신하겠다'며 위협적 언행을 한 혐의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5시께 B씨의 집에서 흉기로 선박 고정 밧줄을 자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선주 B씨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행패를 거듭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면서 또다

시 '불지르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 타고 간 차량에서는 방화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휘발유 30가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상습 협박 전력과 재범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기동취재본부

"선배들 전화통화 끼어들어"...후배 1시간 차량 감금 10대들 경찰조사

선배들의 휴대전화 통화에 후배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후배를 차량에 태워 1시간가량 감금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서는 11일 후배를 차량에 태워 1시간 동안 주행한 혐의(특수감금)로 A(19)군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고흥군 고흥읍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B(16)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보성 벌교읍까지 주행하면서 1시간 정도를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C(18)양과의 통화 도중 후배인 B군이 끼어들어 "말을 함부로 했

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화당시 B군과 C양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군이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사과했지만 A군은 화가나 친구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성=김명순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